



- 기획 특집 ■ 파이디온 칼럼 ■ 사역 돋보기: 전도사학교 1기·찬사모·꿈마루 ■ 파이디온 현장 실습
- 파이디온 지부 이야기 ■ 파이디온 비전트립 후기 ■ 책 이야기 ■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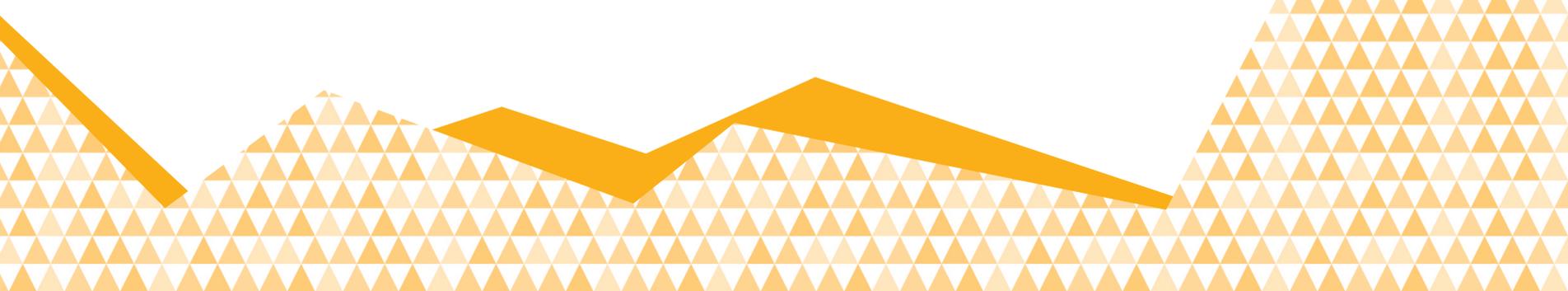
기획 특집

2015년 다음세대 사역, 이렇게 하라

상도제일교회 조성민 목사

골짜기가 깊어야 봉우리가 높다

2015년이 왔다. 누구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이 있다.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주일학교 사역자라면, 교사라면, 그 기대감은 절정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골짜기가 깊어야 봉우리가 높은 법. 사역이라는 봉우리에 부흥의 깃발을 꽂기 전에 어떤 문제의 골짜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없는 가정이 있는가? 문제없는 주일학교가 있는가? 문제없는 사회가 있는가? 없다. 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일학교를 유지만 해도 부흥이야!”라고 교사와 교역자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교육 전문가의 부족, 교육 공간의 부족, 학교 교육에 비해 절대 시간의 부족, 예산의 부족, 부서 연계성의 부족, 말씀 교사의 인원 부족, 교사들의 열정 부족, 장년들의 인식 부족, 주일까지 파고드는 학원 교육, 사회적 저출산 문제, 주5일제로 인한 주말 여행 증가, 주일학교에 투자하지 않는 당회... 도대체 몇 가지를 더 언급해야 주일학교를 부흥시키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이런 문제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가슴이 아픈가? 가슴이 아파야 정상이다.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2015년을 출발해야 한다.





모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이랬다.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만 잘 이해해도 답이 보입니다.” 그렇다.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풀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면 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 문제가 이해되면 과정을 풀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답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가 없는 주일학교는 없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문제가 이해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이해되는 것이 축복이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바디매오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는 돈이나 집이나 아내를 구하지 않았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해답을 주셨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이 있음을 확신하라. 담임목사나 당회에 보이기 위해 만든 보고서는 즉시 파기하라. 수면 아래 깔려 있는 문제의 골짜기를 분석하라. 문제의 골짜기는 어찌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일 수 있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진정한 출발점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단어 - 현장(現場)

‘학교 교육의 붕괴’ ‘교실 교육의 한계’ ‘사제지간의 갈등’ 이러한 단어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런 현실을 피부로 접촉해본 사람이라면 여지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러한 붕괴 현장 속에 마치 동참하기로 한 듯 무너지고 있는 학교가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주일학교이다. 전자의 무너짐에는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지만 후자의 무너짐에는 소수의 의견만 있고 다수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문제는 주일학교 현장에 당장 나타난다. 가장 쉽게 발견되는 것이 다음세대의 감소 현상이다. 이 현상은 기성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달되어야만 하는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증상이다. 여기에서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수용과 우후죽순 열리는 주말과 주일 과외의 확장은 그나마 열악한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인 시간 제한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또 잡는다. 논리적 개념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더 중시하고 지식보다 감성을, 일방적 의사소통보다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력하게 선호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약 90분에 집중되는 주일학교 현장을 더 녹록치 않게 만들고 있다.

등산을 하다보면 종종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생각대로 막 가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지도와 나침반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마음대로 가지 말고 처음의 장소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내가 왜 잘못 왔는가? 왜 주일학교 현장이 어려운가? 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가? 왜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고개를 들지 않는가? 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현상이 보인다.

우리가 아직도 주일학교의 고객(아이들, 부모들, 성도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들은 현장에서 감동받고 감동되기를 원한다. 현장으로 가야 한다.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 감동받는다. 언제까지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현장에는 큰 현장, 작은 현장이 없다. 피와 땀을 흘리는 곳이 현장이다. 피를 흘려본 적이 있는가? 땀을 비 오듯이 흘린 적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말고 주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말이다. 없다면 부흥을 논하지 말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쳤던 몇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길에서 이루어졌다. 길에서 말씀하시고, 길에서 만나셨고, 길에서 고치셨고, 길에서 먹이셨다. 길은 현장의 대명사다. 길을 살려야 길을 갈 수 있다. 현장을 살려야 현장이 보장된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실제라도 다음세대의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현장을 등한시한 기업들이 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을까? 현장에 대해 교만했고 현장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1/168 is never enough

2015년 올미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설렘과 기대가 있는 반면, 어느덧 깊게 다가와 있는 책임과 부담감도 있습니다. 준비와 계획도 부족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역을 잘하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2015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담고 계획 속에 실천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주일학교 평균 모임 시간)으로는 절대로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다음세대 모임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혹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 시간의 양이 적다면 다른 것으로 보완해주면 그만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보완해줄 것은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일어나는 다음세대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담임목회자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숫자와 교회 운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변화는 다음세대가 자라나는 모습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성인 중심의 시간과 공간 배열, 사역 구성, 교역자 배치 등을 벗어나 다음세대를 위해 성인들이 희생해야 하며, 공간과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세대 사역자들이 변화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세대 사역자는 자신의 헌신과 자세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간곡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신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시간과 몸과 물질을 다 드려 헌신할 수 있습니까? 시간 때우기 식의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주일 예배와 양육과 훈련, 교회적 관심, 그리고 가정과의 협력을 만들어낼 계획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과 인도에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필요를 교회와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부모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교회가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간단한 몇 가지 사역을 제안합니다. ① 주일 오전 주일학교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성인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늘려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나눔이 일어나도록 시간을 구성해야 합니다. ② 교회는 부모를 교육해야 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 167시간을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도록 신앙이 우선 순위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계속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일학교에 헌신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③ 온 세대가 모이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단기선교에는 다양한 세대가 섞이도록 합니다. 자녀들도 참석하는 소그룹 모임이 좋습니다. 부모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연극하고 가르치고 대화하는 가족 모임을 해야 합니다.

또다시 새해가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육은 새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육전도사에게 맡겨놓고 교회는 성인들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168시간 중 1시간만 모입니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종율 목사
파이디온선교회 대표

이제 교회로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한다!

최동규 서울신대 교회성장학 교수는 “과거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집단적인 축호 전도, 길거리 전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은 확실히 관계중심 전도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동의하는가? 아이들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이고 학원이고 가정이고 인터넷 속이다. 현장을 탐방하라! 현장 탐방의 목적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고, 현장 탐방의 목표는 자존감을 통해 생긴 자신감으로 관계 전도를 하는 것에 있다.

현장 탐방의 핵심은 타이밍이며 시간 투자이다. 학교 탐방? 요즘 어렵다고 들 한다. 맞다. 어렵다. 학교마다 보안관 제도가 있고 예전처럼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불평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직 학교 탐방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이다. 아침마다 반복해서 등굣길에서 등교 지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이나 교역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출마해본 적이 있는가? 보안관 아저씨들에게 수고하신다며 음료수를 계속 제공해본 적이 있는가? 해보라! 학교의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린다. 학교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이것 또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주일학교 사역에 새로운 돌파구이다. 현장에 나가면 아이들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수많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 주일학교 전도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학교 탐방을 통해 명석만 깔아주면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학교 탐방을 통해 이 말을 “친구 따라 교회 간다”라고 바뀌게 되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 아이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움직여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문장 - “도대체 아이들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라고 한다. 필자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며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새 포도주이다. 나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안 된다.” 스스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인정하는 의식화 작업을 한 것이며 또한 내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던가? 먼저 적(대상)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까지 내려 오게 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 이 시간을 빨리 줄여야 한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물) 복음을 전하는 방법(젓병, 숟가락, 컵, 스스로)은 세대의 바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의 다음세대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사역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질문이 필요하다. “도대체 아이들은 누구인가?”

- 먼저 적(대상)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편견에 상관없이 아이들은 새 포도주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낡은 가죽 부대인 우리는 그들을 ‘어리다, 철없다, 개념 없다, 튼다’라고 표현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폄하하지만, 그들은 분명한 새 포도주이다. 이들은 한없이 팽창하게 되어 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이 팽창을 저지하려다보니 터져버려 둘 다 보전되지 못하는 것이다. 사역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다 이 문제로부터 온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다. 싸우려 하지 말고 교사가 먼저 인정하라. “그래 니네들은 새 포도주들이지!” 그럼 속도 편해진다.

- 둘째 적과의 동침을 시도하라.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동침은 동침이다. 참여시키는 것이다. 요즘 적들은 그렇게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필자는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만화에 은사 있는 아이들을 선택한 후 설교를 15-20컷의 만화로 그리게 했다. 그것을 다음 주 주보에 올렸다. 아이들은 설교보다 설교 만화를 더 좋아했다. 설교 만화로 퀴즈까지 내니 적들이 더 좋아했다. 그리고 주일예배 사회도 적들에게 맡겼다. 적들을 제자훈련까지 참여시켰다. 매월 목욕하는 날을 만들어서 함께 목욕도 했다. 이제 이 적들이 나를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봐주었다. 적과의 동침은 성공적이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길은 새 포도주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자녀를 교회로 보내는 가정(부모)에 대해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일 아침,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오! 성령님 이제 일어나서 교회로 가겠나이다. 오늘 하루도 은총을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스스로 일어나 교회로 오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아이들을 잠과의 전투에서 깨워서 교회로 보내주는 이들은 부모이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에서 너무나 가볍게 제외하고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 그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그런데 별 볼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주일학교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또한 그들이 나에게 맡긴 자녀에 대해 어느 정도 보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 요즘 주일학교가 침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 시기 특히 중간, 기말시험 기간과 고3이 되면 오히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주일 성수하며 신앙으로 승리해야 하는데, 부모의 도움이 없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신앙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동역자는 일방적이지 않다. 마치 다리를 묶고 어깨동무를 하고 달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부모를 주일학교 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보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참여시켜야 한다. 인디언 속담에 “말해주면 잊어버릴 것이다. 보여주더라도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참여하게 해준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해하면 그때는 지지자가 되는 것이다. 일일 교사로 초청해도 좋다. 간식 담당 교사도 좋다. 예배 시간에 기도자로 세워도 좋다. 특별히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 집회하며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사가 부족해 고민스러운가? 그들을 참여시켜라. 반드시 그중에 마음이 열린 부모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원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기기에 그렇다. 부모인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 별 볼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별 볼일만 남은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넣어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맡긴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스타(별)로 만들자. 별 볼일만 남은 그들은 그 별을 볼 자격이 당연히 있다.





계속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마지막으로 주일학교를 목회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버린 교회와, 주일학교를 교구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교역자와, 마지못해 사역하는 교사들을 보면 불쌍해진다. 그 결과가 마치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녹슨 자전거와 같기 때문이다. 녹이 슬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음을 의미한다.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어느 기간까지 치우도록 공지한다. 공지의 마지막에는 일괄적으로 정리함을 고시한다. 그리고 어느날 자전거는 치워져 있다. 자전거에 녹이 슬도록 둔 주인의 마음은 씁쓸할 것이다. 주일학교가 목회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나면 이러한 수순을 밟게 된다. 눈에 보이기 싫어 불쌍하다는 것이다. 주일학교에 투자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터지게 되어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당장의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 투자하라. 계속 투자하라. 반드시 터진다. 전제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것을 교회와 교역자와 교사가 기다려주어야 한다. 금 달걀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르면 안 된다.

조성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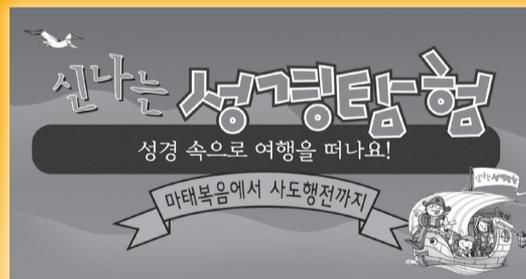
- 상도제일교회 담임목사
- 바나나농장 1기 졸업, VBS팀 주제강사
- 전) 대전세로남교회 주일학교 담당(13년)
- 전) 서울상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5 겨울 성경학교 파이디온 교사 강습회

1일 강습회:
1월 10일(토) 장로회신학대학교
1월 17일(토) 총신대학교

저녁 강습회: 1월 12일(월)~13일(화)
서울 성민교회/ 인천 은혜교회/
대전 해성교회/ 대구 성서중부교
회/ 광주 겨자씨교회/ 부산 해운대
제일교회



1일 강습회 1월 10일(토)
장로회신학대학교



1일 강습회 1월 17일(토)
총신대학교



〈신나는 성경탐험〉,
〈준비됐나요〉,
〈세계를 품는 아이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0일~17일까지
전국에서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강습회 장소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paidion.org

Are You Ready fo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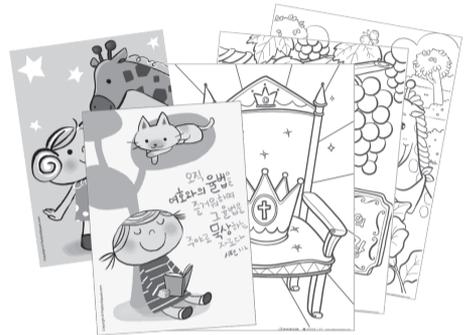
2015년의 첫 발걸음을 내딛을 준비가 되었나요?



한 해를 알차게 계획하는
연간 사역 기획안



교사와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출력해서 바로 사용하는
주일학교 콘텐츠



우리 부서를 새로운 분위기로 UP!
신년 현수막



매일의 삶 속에 찬양이 흘러넘치는
어린이 CCM



처음 온 아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신입반 교재



새해 교회를 섬기는
교사, 직분자를 위한 추천 도서



파이디온스퀘어와 함께
2015년을 힘차게 시작해요.



다음세대 사역의 모든 것
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전도사학교 1기 1학기를 마치며

목회자의 아내로 10년을 사모라는 이름으로 지내다 2013년에 유치부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유·초등부 담당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다. 11년 전에 사역했던 유·초등부를 다시 사역하게 되면서, 나름의 소신을 갖고 여러 사역을 했지만 공백이 긴 탓인지 사역을 할수록 기쁨보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파이디온 CEE 세미나를 통해 여러 가지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주저 없이 전도사학교 10주 과정을 등록했다.

첫주, 전도사학교를 향하던 발걸음은 설렘이었다. 고종을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내내 설렘은 기대로 변했다. 다음세대 사역자론과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맞아 내가 이래서 전도사학교를 등록했지!'라는 마음과, 교육전도사로서 다음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 교사들과 비전을 잘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예배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Home Connection을 통해 부모이며 사모이자 교육전도사로서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부모로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대신,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함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우리 유·초등부도 2015년에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 4복음서 읽기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성경 이해를 통해 본 구약의 파노라마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모션과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유난히 지명이나 지리에 약한 내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쏙 넣어준 시간이었다.

설교 준비와 설교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해보니 어느 누구에게도 설교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학생이 되고 시간이 흐르니 사역을 하게 되었고, 사역을 하려니 설교는 잘하든

못하든 해야 하는 일이었다. 목상 나눔이나 여러 가지 여성 모임을 주로 인도하던 나에게 강해설교의 9가지 단계는 녹록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전도사학교를 통해 내내 깨닫고 다짐한 것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기에 이 강의는 내게 가장 큰 변화를 주었다. 설교를 실제로 해보며 시간의 제약 때문에 아쉬움은 있었으나, 알고 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설교의 습관과 언어의 습관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를 다시 겸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주, 연간교육 계획 짜기는 그동안 나에게 보이기 위한 연간교육 계획을 세웠던 나를 돌아보게 하였다. 한번 제출하면 다시 보지 않는 계획서가 아니라, 매주 계획서를 보며 다시금 본질로 돌아와 2015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세울 것을 다짐할 수 있었다.

그렇게 10주 동안 전도사학교를 결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마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던 생각을 2015년 교육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큰 힘을 받은 것 같다. 주일학교는 '재미를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임을 교사들에게 재차, 삼차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전도사학교를 통해 배운 확신 때문이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가르치는 것임을 깊이 새기며, 주신 도전과 기대를 잊지 않기를 다짐해본다.



남혜영 전도사
• 대한신학원 졸업
• 팔복교회 유초등부 담당

Paidion Ministries 2015 Jan-Mar

크리스천 티칭 1일 세미나



2015년 1월 12일(월), 15일(목), 19일(월), 22일(목), 26일(월)

시간 AM 9:00-PM 5:30 대상 담임목사, 교육 목사, 부서 사역자, 부장, 부감, 교사, 선교사, 평신도 등 모든 크리스천 내용 크리스천 티칭(A Theology of Christian Teaching) 강사 양승헌 목사(Ph.D. 파이디온선교회 사역자 훈련원장, 세대로교회 담임), 고종을 목사(파이디온선교회 대표) 지역 원주(12일), 목포(15일), 천안(19일), 춘천(22일), 인천(26일), 지역별 장소는 홈페이지 참조 등록비 36,000원(각 일자별 7일 전까지 30,000원/ 강의안, 중식 제공)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전도사학교 1일 세미나



2015년 2월 2일(월)

시간 AM 9:00-PM 7:00 대상 목사, 강도사, 부장, 부감 등 주일학교 지도자 강사 양승헌 목사(Ph.D. 파이디온선교회 사역자 훈련원장, 세대로교회 담임), 고종을 목사(파이디온선교회 대표), 파이디온선교회 전문 강사 장소 상도제일교회(조성민 목사 사무, 동작구 상도동 소재) 등록 인원 선착순 200명 등록비 강사 과정 1월 26일까지 10만 원/ 1월 27일부터 12만 원(교재, 강사 자격증, 자료 CD, 강의 MP3, 점심 및 간식 제공) 일반 과정 6만 원(교재, 점심 및 간식 제공)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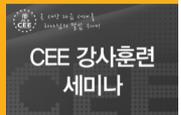
다음세대 설교 세미나



2015년 2월 9일~12일(월~목, 3박 4일)

대상 모든 교육부서 사역자, 다음세대 설교에 관심 있는 분 강사 양승헌 목사(Ph.D. 파이디온선교회 사역자 훈련원장, 세대로교회 담임), 고종을 목사(파이디온선교회 대표) 장소 송탄제일교회 안성수양관 등록 인원 선착순 40명(어린이 대상 사역자-25명/ 청소년 대상 사역자-15명) 등록비 1월 26일까지 32만 원/ 2월 2일까지 35만 원/ 2월 3일부터 39만 원(강의안, 숙박, 식사, 간식 포함)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CEE 강사훈련 세미나



2015년 2월 23일(월): CEE 1-1 크리스천 티칭, 24일(화): CEE 1-2 승리하는 삶, 26일(목): CEE 1-3 한눈에 보는 성경, 27일(금): CEE 1-4 반목회

대상 강사 과정 정규 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교단인준 신학교) 소지자로서 사역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 등 일반 과정 학력 제한 없음(강의만 듣고자 하시는 분) 장소 주은혜교회 등록 인원 과목별 선착순 30명(과목당 10명 미만 시 폐강) 등록비 강사 과정 2월 18일까지 13만 원/ 2월 19일부터 15만 원(교재, 강사 자격증, 자료 CD, 강의 mp3, 중식 및 간식 제공) 일반 과정 각 과목당 6만 원(교재, 중식 및 간식 제공)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꿈마루 제자훈련 세미나



2015년 2월 7일(토)

시간 AM 9:30-PM 6:20 대상 주일학교 사역자, 부장, 교사, 부모 장소 파이디온선교회 강의실(2층 디모데홀) 등록 인원 선착순 30명 등록비 1월 31일까지 25,000원/ 2월 1일부터 30,000원(교재 별도) •교재는 가지고 오거나 현장에서 구입(할인 판매)하여야 합니다. •교사용 및 어린이용 교재를 꼭 지참하여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등록 인원 15명 미만 시 강의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순현주 전도사(070-4099-7706)

DISC 강사 훈련 세미나

성경인물 프로파일 (BPPS)



2015년 3월 9일(월)

시간 AM 9:30-PM 6:00 대상 4년제 대학 과정을 졸업한 사역자, 교사 내용 DISC의 기본적인 프로파일로서 4가지 유형 D, I, S, C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각 유형에 맞는 성경 인물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과정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등록비 20만 원(강사 매뉴얼, 강사 자격증, 강의용 자료 CD, 중식 포함)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오세영 목사(070-4099-7716)

DISC 강사 훈련 세미나

청소년 행동 유형/ 학습 유형 프로파일 (I-Sight/ I-Learning)



2015년 3월 16일(월)

시간 AM 9:30-PM 6:00 대상 BPPS과정을 수료한 사역자, 교사 내용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DISC 프로파일로서 행동 유형 분석과 더불어 학습 유형과 진로를 찾아보고 적용하는 과정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등록비 20만 원(강사 매뉴얼, 강사 자격증, 강의용 자료 CD, 중식 포함)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오세영 목사(070-4099-7716)

DISC 강사 훈련 세미나

관계 유형 프로파일(RP)



2015년 3월 23일(월)

시간 AM 9:30-PM 6:00 대상 BPPS과정을 수료한 사역자, 교사 내용 DISC 유형을 기반으로 한 관계 유형 프로파일로서 부부, 부모-자녀, 팀 안에서의 관계 유형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등록비 20만 원(강사 매뉴얼, 강사 자격증, 강의용 자료 CD, 중식 포함)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오세영 목사(070-4099-7716)

찬사모 심화 과정



2015년 3월 9일-4월 20일(매주 월, 7주)

시간 PM 7:00-9:30 대상 어린이 찬양 인도자(찬사모 기본 과정 수료자) 내용 개인별 리더 세우기, 예배 인도법, 진행과 활동의 실제, 보컬 트레이닝 등 장소 파이디온선교회 강의실(2층 디모데홀) 등록 인원 선착순 30명 등록비 15만 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현장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박효주 간사(070-4099-7714)

2015년 청소년 겨울 캠프

Follow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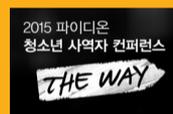


2015년 1월 19일~20일(월~화)

대상 14~19세 청소년 60명(한 교회당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 Follow Jesus! 사복음서를 통해 살펴보는 예수님의 발자취 장소 소망수양관(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길 122-83) 등록비 39,000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김정 목사(070-4099-7708)

2015 청소년 사역자 컨퍼런스 - The Way

청소년 사역, 콜라보하라!



2015년 2월 23일(월)

시간 AM 10:00-PM 5:30 대상 청소년 사역자, 부장, 교사, 부모 등 청소년에게 관심 있는 누구나(선착순 100명)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등록비/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40,000원 현장 등록 42,000원(단, 온라인 선착순 마감 시 현장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김정 목사(070-4099-7708)

자세한 내용과 시간표, 장소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paidion.org

파이디온선교회

교회교육 전문가를 세우는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목요교사학교



2015년 3월 5일~5월 7일(매주 목, 10주)

과정	새순 1	새순 2
새순반	크리스천 티칭/반목회	승리하는 삶/한눈에 보는 성경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동원교회

시간 PM 7:30-9:30 대상 모든 부서 주일학교 교사, 부장, 부감, 사역자 등록비 2월 23일까지 70,000원/ 2월 24일부터 75,000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20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전도사학교



2015년 3월 2일~5월 11일(매주 월, 10주)

시간 PM 1:00-6:00 대상 교육부서 사역자(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 간사)로 신대원 재학 또는 현재 사역 중인 자 강사 고종을 목사(파이디온선교회 대표), 파이디온선교회 사역팀장, 기독교 교육 전문가 외 다수 장소 파이디온선교회 강의실(2층 디모데홀) 등록 인원 신입 기수(1학기 과정)-선착순 40명 등록비 2월 16일까지 40만 원/ 2월 17일부터 44만 원(분납 가능-할인 없음/ 최초 결제 24만 원/ 추가 납부하는 학기 중 현금 결제)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등록 파이디온선교회 강사 오디션 지원 자격 부여(매년 11월 실시)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디렉터스쿨(1기)



2015년 3월 2일~5월 18일(매주 월/ 1박 2일 합숙 2회, 1주일 합숙 1회)

시간 AM 10:00-PM 6:00 대상 교회교육 총괄 담당자 및 교육 목회에 비전을 가진 교역자, 선교사 강사 양승헌 목사(Ph.D. 파이디온선교회 사역자 훈련원장, 세대로교회 담임), 고종을 목사(파이디온선교회 대표), 그 외 교회교육 전문 기관 대표 및 전문가 다수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 모집 기간 2015년 2월 2일(월) 까지 모집 방법 서류 심사 후 등록 결정 제출 서류 지원서, 추천서 2장, 자기 소개서(홈페이지 참조) 등록비 120만 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파이디온 찬사모,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일곱살 청년 유보라입니다. 지금의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던 4년 전,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찬양인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제가 보조 울동교사에서 갑자기 찬양인도자로 '승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찬양집도 한 권 없고, 저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어디서 선곡해야 하나요?"라는 저의 물음에, 전도사님도 당황하실 정도였습니다. 원래 부르던 곡과 전도사님의 추천곡 등으로 인도를 하다가, 어느덧 여기저기 찾아보며 선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지만, 친언니와 함께 찬양 인도를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사님을 통해서 파이디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부터 파이디온 여름 성경학교 찬양 콘텐츠를 알게 되었고, 3년 전부터 VBS 강습회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나하나 잘 배우고 싶어서 나흘로 3일 강습회를 참석해 열심히 찬양과 울동을 배워갔습니다. 이래저래 파이디온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며, 찬사모 세미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찬양 인도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세미나를 듣고 싶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아이들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난여름, 용기를 내 스스로 찬사모에 등록했습니다.

도전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기쁨 때문에 12주 동안 월요일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새 찬양을 부르고, 새로운 사람들과 같은 고민을 나누고, 강의를 통해 깨닫고, 배운 것을 주중에 되새겨 돌아오는 주일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언니는 12주 동안 차츰 변화하는 저의 찬양 인도를 지켜보며 칭찬으로 격려해주었습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 여러 강사님을 통해 많은 찬양과 활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지, 찬양 인도

자의 영성과 자세, 찬양 인도의 실제와 활동, 찬양 팀 운영과 지도, 작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인 삶이 바빠졌다는 핑계로 숙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 기수 인도자들은 출석과 더불어 에세이와 숙제도 꼼꼼히 챙기셔서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금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전도사님이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몇몇 교사가 이사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부담감을 이유로 유년부를 떠나려 합니다. 저는 올 한해 찬양 인도와 담임교사, 총무의 역할을 맡아 분주하게 봉사해왔는데, 이대로라면 교사가 더욱 줄어들 것만 같습니다. 걱정이 되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2015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자리를 묵묵히 지켜갈 때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찬사모 강의에서 진솔하게 자신과 가정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강사님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강사님의 삶의 전체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나는 찬양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소망을 함께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찬사모에서 배우고 마음에 담은 것들이 하나님과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파이디온 찬사모, 참 고맙습니다!



유보라

• 보라매교회 유년부 찬양 담당



홍콩중앙교회 어린이 제자훈련 '꿈마루' 1기 이야기

지난 2월 홍콩의 여름처럼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세상 가장 높은 꿈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어린이 제자훈련 '꿈마루' 세미나 현장이었습니다. '마루'는 순우리말로 '정상',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꿈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제자훈련 '꿈마루'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최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년 제자훈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삶이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어린이들에게도 제자훈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담임목사님의 추천으로 지난 2월 꿈마루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교회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린이 제자훈련 꿈마루반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다보니 자녀들의 한국어 수준이 '꿈마루(7-9세용)' 교재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3-6학년층 대상으로, '어와나'를 1년 이상 수료하고 1월 달에 실시한 신나는 성경탐험 1(3회)을 참석한 어린이 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3학년 여자아이 4명, 4학년 남자 1명, 5학년 남자 1명 총 6명의 어린이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총 10주) 제자훈련으로 모였습니다.

3주간의 모임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아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다양한 활동으로 배울 수 있었기에 아이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120분

동안 삶을 나누고, 말씀을 배운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매주 외출 말씀, 큐티, 실천 과제들을 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 자녀들의 입술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라는 고백이 흘러나왔고, 한 주 한 주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훈련받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의 부모님과 형제들,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고백에 서로 박수치며 기뻐하였습니다.

꿈마루 1기를 수료한 6명의 어린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3-5학년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춘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찾고, 비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꿈마루 1기생은 현재 아이들의 요청으로 매주 토요일 어린이 디모데 양육훈련 중입니다. 계속되는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 6명의 어린이들이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과 음식으로 성장해가듯 신령한 말씀을 섭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까지 계속 성장하여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믿음의 다음세대를 이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은혜 전도사
• 홍콩중앙교회

파이디온 현장 실습

2014년 10월 27일, 드디어 매주 월요일 4시간씩 8주 동안 진행되었던 파이디온 현장 실습을 마무리하였다. 교회 사역을 마친 바로 다음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 했던 터라 8주가 짧지만은 않았다. 한번쯤은 결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밀려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모든 과정을 지내고 나니, 한 주 한 주가 소중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첫날 파이디온 현장 실습을 시작했을 때, '참 여기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다. 서초 7번 마을버스의 존재를 몰라 내방역에서 무더운 햇볕을 맞아가며 언덕길을 올랐을 때까지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사무실에서 밝게 맞이 해주시며 시원한 음료를 건네주시는 배려에 감사가 절로 나왔다. 그리고 담당 목사님과의 만남은 8주를 견디게 해줄 만큼 매력이 있었다. 어색한 첫 만남에도 특별한 아이디어로 서로를 어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며, 파이디온 사역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러한 분위기는 매주 이어졌다.

8주간의 현장 실습은 파이디온의 주요 사역 팀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외협력 팀, VBS 팀, 사역자훈련 팀, 청소년사역 팀, 캠프사역 팀, 문화사역 팀 등 파이디온의 팀 구성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 파이디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잘 만들어진 여름 성경학교 교재'였는데, 보다 넓고, 조직적인 전문 사역 단체임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각 팀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세운다는 '자부심'이었다. 사실 개별 사역의 프로그램과 특색에 치중하다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본질인데, 한결같이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장 실습 담당 수퍼바이저로 섬겨주셨던 목사님과의 시간도 매우 있었다. 첫 시간부터 좋은 인상을 안겨주었던 목사님은 파이디온 현장 실습 차원을 넘어서서 다음세대 사역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자 수고해주셨다. 그래서 교육 목회 비전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현장에 대한 분석과 나눔을 이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각자 매일의 삶을 이미지와 연상된 단어로 함께 나누거나, 버추(virtue) 카드를 이용한 서로의 장점 발견하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귀한 시간도 소소하게 가졌다. 그리고 다음세대 설교 사역에 대한 실질적 지침을 나눔으로써 부서 사역에 대한 자신감도 불어넣어주셨다. 한 주 한 주의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했다.

무더웠던 9월 1일부터 쌀쌀했던 10월 27일까지 날씨의 변화처럼 나의 마음도 어느덧 다음세대를 향한 간절함으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다음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헌신하는 파이디온선교회를 만난 것과, 그 만남 가운데 다음세대를 위한 강한 도전을 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실습이었다. 그리고 평생 같은 목적으로 동역할 목사님, 동기 전도사님들과 귀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신병현 전도사
 • 산성교회 유년부 담당
 • 장로회신학대학원 재학

picok

피콕은

성경의 이야기가 담긴 즐거운 놀이를 개발합니다

www.picok.co.kr
TEL: 070.8683.3301

목상이 있는 웃놀이
부제: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

온 가족이 즐기면 웃놀이에 성경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나님나라, 캐릭터, 상벌, 우림과 동민, 인도와 보호, 심판...)하면 할수록 즐거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가정용/공동체용/다양한재질/사이즈주문제작가능)

구름기둥과 불기둥 (총13:17~22)

우림과 동민 (매8:8, 총28:30)

푸른초장과 실민인물기 (시23:2)

자기심지가지기 (마16:24)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시23:24)

우림과 동민 (매8:8, 총2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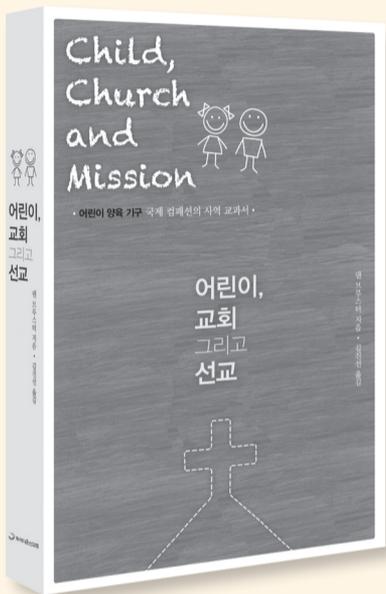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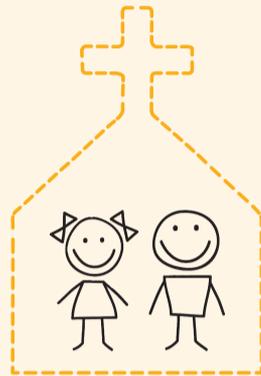
우림과 동민 (총28:30)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를 확인하세요

콘텐츠 교구재

어린이, 교회 그리고 선교

전 세계 12개 후원국과 동역하며, 1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국제 컴패션의 사역 교과서!



어린이 사역, 이벤트가 아닌
전인적 성장이다!

이 책은 어린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는 전인적 양육을 제안하며,
그 가운데 교회와 우리의 역할을 침착하고 집요하게 정리해놓았다.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추천사 중에서)

댄 브루스터 지음 | 김진선 옮김 | 391쪽 | 15,000원

파이디온선교회

※ 디모데성경연구원의 각 세미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orldteach.co.kr ☎02-2652-0919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사용,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인정한 말씀 사역 기관인

디모데성경연구원

1,2,3월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구약 · 신약의 파노라마 강사 훈련

구약의 파노라마는 모두 154개(구약 · 신약 각 77개)의 모션(움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강의 사이사이에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시각 자료(구약 : 110여 개, 신약 : 90여 개)를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성경을 흥미진진하게 배우게 된다.

구약 · 신약의 파노라마

일시 2014년 1월 12일(월)~14일(수)

장소 소망교회 수양관

등록 30만원

구약의 파노라마

일시 2014년 3월 9일(월)~11일(수)

장소 소망교회 수양관

등록 30만원

※ 3월에 있는 강사 훈련 세미나는 <구약의 파노라마> 한 과목만 진행됩니다.
※ 강사 패키지 포함(학생용 교재, 인도자 지침서, 강의 mp3, 강의 동영상, 강의용 PPT), 강사 자격 부여, 숙식 제공
※ 위 세미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세미나에 신청하신 후 5만원을 선입금해야 세미나 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 성경 연구와 설교 세미나

참여를 토대로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기술을 개발하고 훈련을 쌓으며, 의욕을 창출하고 습관화되도록 당신을 풍성한 은혜 안에서 연습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다.

일시 2014년 2월 9일(월)~11일(수)

장소 소망교회 수양관

등록 30만원

※ 위 세미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됩니다.
※ 숙식이 제공됩니다.
※ 위 세미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세미나에 신청하신 후 5만원을 선입금해야 세미나 등록이 완료됩니다.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 퍼즐

행동 유형(DISC)을 알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사라진다! 실제적이어서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다.

• 일시 2015년 1월 5일(월)
• 장소 목동지구총교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는 우회로를 만날지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는 참 믿음과 용기를 지닌 그리스도의 삶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 일시 2015년 1월 19일(월)
• 장소 목동지구총교회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7가지 법칙

자신도 잘 가르치고 남도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은 모든 교사와 지도자에게 평생 기억될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일시 2015년 1월 26일(월)
• 장소 목동지구총교회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리더

이 세미나는 당신이 실패에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 것이며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 일시 2015년 2월 2일(월)
• 장소 목동지구총교회

티칭스타일

가르침의 현장에서 지루함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모든 이가 배우는 이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될 것이다.

• 일시 2015년 2월 16일(월)
• 장소 목동지구총교회

크리스천 베이직 & 구약·신약의 파노라마 플러스

<구약·신약의 파노라마 플러스>로 성경의 개관과 본문의 요약 및 핵심을 배우고 <크리스천 베이직>으로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배운다.

• 일시 2015년 2월 23일(월)
• 장소 목동지구총교회

하나님이 보여주는 행복한 부부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원칙을 통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며 성공적인 가정을 위한 해결책을 배울 수 있다.

• 일시 2015년 3월 2일(월)
• 장소 목동지구총교회

유혹의 시대를 거룩하게 사는 비결 & 변화를 만드는 여성들

<유혹의 시대를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거룩을 향한 격려와 도움을 주며 <변화를 만드는 여성들>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여성에게 용기를 준다.

• 일시 2015년 3월 23일(월)
• 장소 목동지구총교회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 퍼즐

행동 유형(DISC)을 알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사라진다! 실제적이어서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다.

• 일시 2015년 3월 30일(월)
• 장소 목동지구총교회

실명회



파이디온 지부 이야기

믿음의 씨앗을 심는 파이디온

박두미

-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4학년(졸업예정)
- 파이디온선교회 총신대학지부 활동



총신에서의 대학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일을 뽑는다면 '파이디온'을 빼 수 없을 것 같다. 2010년 3월 기대되는 마음으로 처음 '파방'이 있는 신관 6층으로 올라갔다. 채플이 끝난 후 에덴동산에 모여 찬양하고 '겨자씨 기도회'를 하면서 해외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세계 복음화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을 한 새내기들을 사랑과 따뜻한 배려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파이디온 선배님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파이디온 동아리 를 위해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주느라 애쓰신 간사님들과 동아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섬겨준 임원들, 파이디온 본부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까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에 감사드린다.

2010년 동아리 생활을 시작하며 어린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과나 활동 프로그램도 계획해보면 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2012년에 동아리 모임에서 찬양 인도로 섬길 수 있도 록 세워주시고, 학부 울동 도우미로는 매년 여름마다 교사 강습회를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서툴지만 새로운 어린이 찬양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가사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들을 다시 곱씹어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13년도 겨울에는 파이디온 동아리에서 '신나는 성경탐험' 겨울 캠프를 맡고 진행하면서,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전주, 부산, 대구, 대전 지방 강습회에서 합숙하면서 파이디온이 단순히 교제만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닌 하나 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제 곧 졸업을 하면 학부에서 볼 때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하나 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파이디온으로부터 믿음의 씨앗이 심어져 온 세계 곳곳에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 어지길 기도한다.

파이디온 지역 지부 사역 안내

충남/대전

충남/대전 교사 교육 및 파이디온 세미나 관련 문의:

권민재 전도사

열민침례교회, 010-3152-0825, yulminch@gmail.com

대전 신입반 세미나(학령전/ 학령기)

2015년 1월 24일(토) AM 10:00-PM 1:00

대상 주일학교 사역자(학령전/ 학령기), 부장, 교사 장소 새누 리 3교회(대전광역시 유성구) 등록비 학령전 35,000원(1월 19 일까지 31,500원/ 1월 20일부터 35,000원/ 1월 22일 마감) 학령기 20,000원(1월 19일까지 18,000원/ 1월 20일부터 20,000원/ 1월 22 일 마감) 등록 방법 온라인 사전 등록

대전 꿈마루 제자훈련 세미나

2015년 2월 2일(월) AM 9:30-PM 6:30

대상 주일학교 사역자(유치부, 유년부), 부장, 교사, 부모 내용 저학년(7-9세)을 위한 제자훈련 세미나 장소 새누리 3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록비 1월 28일까지 25,000원/ 1월 29일 부터 30,000원(교재 별도) 등록 방법 온라인 사전 등록

- 교재(어린이용/교사용)는 제공되지 않으며, 파이디온스퀘어(www.paidionsquare.com)나 기독교 서점 또는 강의 현장(화인)에서 구입하 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용과 교사용 교재를 모두 지참하셔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부산

경남/부산 교사 교육 및 파이디온 세미나 관련 문의:

박성덕 목사

온양중앙교회, 010-6862-0094, cochrist@hanmail.net

부산 반목회 세미나 (새해 신입교사 교육 과정)

CEE 1-4 반목회(Leading a Class)

- | | |
|--------------|--------------|
| 1장 교사론 | 4장 친구로서의 교사 |
| 2장 어머니로서의 교사 | 5장 코치로서의 교사 |
| 3장 농부로서의 교사 | 6장 아버지로서의 교사 |

2015년 1월 5일(월), 6일(화), 8일(목) PM 6:30-10:00

대상 주일학교 사역자(학령전/ 학령기/ 청소년), 부장, 교사 내 용 CEE1-4 반목회 새해 임명된 신입 교사들의 [반목회] 준비를 도와 드립니다. 장소 초랑교회(부산시 동구) 등록비 18,000원 등록 방법 온라인 사전 등록 및 현장 등록

제주

제주 교사 교육 및 파이디온 세미나 관련 문의:

민경민 목사

탐라교회, 010-7795-7179, mini1218@empal.com

제주 신입반 세미나(학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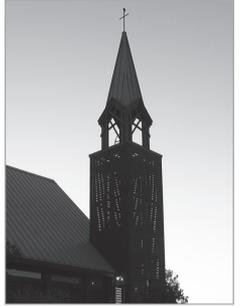
2015년 1월 26(월) PM 7:00-10:00

대상 주일학교 사역자, 부장, 교사 내용 신입반 운영을 위 한 3주 교육 과정으로 어린이의 필요를 이끌어내는 활동 과 신나는 게임, 주제를 익히고 느끼게 하는 입체 적인 학 습 자료, 아이의 결심을 독려하는 약속 카드, 사랑과 관심을 전해주는 격려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소 탐라교회 (제주시 이도2동) 등록 1월 21일까지 18,000원/ 1월 22일부터 20,000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및 현장 등록

제주 반목회 교사 세미나

2015년 3월 16(월)~17(화) PM 6:30-10:00

대상 주일학교(학령전/학령기/ 청소년) 사역자 및 교사내 용 주일학교 교사들이 반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누 는 세미나로 CEE 교재를 통하여 배우고 나누는 시간입니 다. 장소 탐라교회(제주시 이도2동) 등록비 18,000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및 현장 등록



2 0 1 4 P a i d i o n V i s i



또 가고 싶은 교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미국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파이다온선 교회에서 진행한 미국 비전트립을 통해 미국 내에서도 영향력을 갖춘 매리너스 교회, 새들백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서 나누려고 한다.

참여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토요일에 LA 얼바인에 있는 매리너스 교회 저녁 예배를 참석했다. 예배가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한 가족이 옷을 맞춰 입고 피켓을 들고서 열렬하게 환영해주었다. 교회 곳곳에는 젊은 자원 봉사자들이 반갑게 안내해주었다. 처음 방문한 사람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었고,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먼저 교육관에 들어갔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

고, 일찍 온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남자 아이들은 스포츠 게임, 여자 아이들을 공예 재료들을 준비해두었다. 예배실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참여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런 교육 환경은 매리너스 교회뿐만 아니라 새들백, 노스포인트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자녀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세 교회는 공통적으로 부모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은 좋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육 환경은 청결하고 안전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다. 예배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언제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 되는지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하거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다.

또 가고 싶은 교회

처음 외국을 방문하게 되면 다른 문화와 낮은 환경에 긴장하고 위축되고 궁금한 것들이 많게 마련이다.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이나 우리말 안내 표지판을 보면 매우 반갑다. 우리가 방문한 교회들의 특징은 기존에 교회 문화에 익숙한 내부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에 처음 방문한 외부자의 관점에서, 부모와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며 어떤 필요를 느끼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고 있었다. 교회에 와서 좋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우리 팀을 안내해준 가이드는 "매 주일마다 귀한 손님을 맞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외형은 쉽게 따라할 수 없지만

미국교회와 우리교회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따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헌신된 교사들이 아이들을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교회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교사들을 지원하며, 부모의 입장에서 교회 교육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환영, 세심한 안내문, 어른 예배 시간에 맞춰 마치는 것, 주차 장소 배려, 청결한 예배 장소)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관점을 바꾸면, 우리도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은 교회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세대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다음세대 예배(찬양) 인도자 세미나**

2015년 2월 9일(월)~10일(화) / 2월 23일(월)~24일(화) / 2월 28일(토)

대상 학령전(영, 유아, 유치) / 학령기(1~6학년) 부서 어린이 찬양 인도자 및 사역자

내용 학령전 예배와 찬양, 다음세대 예배 인도자(의미와 자세), 미취학 아이들의 특성, 찬양 인도 방법 (콘티 짜기, 찬양 배우기 활동, 손유희, 찬트 등), 예배곡 배우기

학령기 예배와 찬양, 다음세대 예배 인도자(의미와 자세), 예배 인도의 실제(콘티 짜기, 멘트법, 진행 방법), 예배곡 배우기

날짜	시간	지역	등록비	등록 방법
1차 2월 9일(월)~10일(화)	☎ PM 7:00~9:00	서울(강남)	1월 26일까지 25,000원 / 2월 4일까지 28,000원 / 2월 5일부터 30,000원	온라인 등록, 현장 등록
	☎ PM 7:00~9:30			
2차 2월 23일(월)~24일(화)	☎ PM 7:00~9:00	서울(강북), 분당	2월 9일까지 25,000원 / 2월 18일까지 28,000원 / 2월 19일부터 30,000원	
	☎ PM 7:00~9:30			
3차 2월 28일(토)	☎ AM 10:00~PM 4:00	부천, 대전	2월 14일까지 34,000원 / 2월 23일까지 37,000원 / 2월 24일부터 40,000원 (중식 제공)	온라인 등록 (현장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AM 10:00~PM 4:30			

문의 권효정 간사(070-4099-7736)

학령전
 학령기



이태진 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강남교회 교육 담당



o n T r i p U S A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가을이 찾아오기 시작한 아름다운 계절 9월, '미국 비전트립'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기대와 설렘이 공존했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12명이 모여 미국의 다음세대 사역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대 가득 미국으로 출발~ Go! Go! Go!

어린이 사역 기관 'Gospel Light' 방문 & KidMin Conference' 참석

가스펠라이트는 주일학교 교육 과정, 여름 성경학교 사역 자료를 만들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돕고 있는 미국의 어린이 사역 기관이다. 한국의 파이디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을 방문했을 때, '파이디온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의 메시지, 손수 준비하신 간식들, 마음껏 보고 가져가라고 꺼내두신 많은 자료들을 통해 참 세심하게 우리의 방문을 위해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짝 열린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관의 사무실을 돌아보고, 디자인과 커리큘럼을 둘러보며 미디어 담당자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평신도 사역자였다. 기관에 소속되어 자료들을 개발하고 동시에 자원봉사자로 개교회를 섬기며 자신들이 만든 교재들이 현장에서 괴리감 없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검토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있었다. 또한 커리큘럼의 분명한 방향성과 가치를 뼈대로 교재 개발을 하고 있었다. 한 자리에서 10년, 또는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

이라고 말했다. 이 사명에 대한 그들만의 자부심과 기쁨이 그들의 말과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의 말과 표정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여러 질문으로 나의 사명을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비전트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KidMin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오하이오 주에 있는 콜럼버스로 이동하였다. Group 출판사는 주일학교, VBS,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을 위한 자료들을 출판하는 하는 기관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 교사, 수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 컨퍼런스는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나뉘어 3일 동안 진행되었다.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스킷 드라마와 다양한 공연을 보는 내내 한 가지 주제만을 전달하였다. 또한 수많은 전문가와 함께 세분화된 트랙 안에서 워크숍을 포함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었다. 다음세대 사역을 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주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 현장 속에 있음이 감사였고 만족이었다.

Mariners Church & Saddleback Church & Northpoint Community Church 방문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의 교회를 탐방하였다. 세 개의 교회를 탐방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부러웠던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어린이와 가정 중심의 교회 분위기였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한 문화가 바탕이 되었기에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된다.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과 배

려가 넘치고 있음은 교회의 시설물과 그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을까 생각하며, 아쉽고 부러운 마음이 함께하였다.

세 교회의 공통된 두 번째 특징은 사역의 중심에 평신도가 있다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서 말하는 자부심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더욱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결코 다 수용될 수 없겠지만 평신도들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통로를 건강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사역 현장 속에 발견한 것은 한 사람의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Godly Leader, 비전을 품은 한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본다.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교회와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기대해본다.

장혜미 전도사

- 총신대 교육대학원 기독교교육 전공
- 지구촌교회 미취학 지구
- 파이디온 문화사역 팀 시니어 강사



YOUR ETERNAL REWARD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19-21)

책 이야기

영원한 상급

어윈 W. 루처
도서출판 디모데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2003)에서 주인공 브루스 놀란(짐 캐리 분)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채 끝나지 않는 빈 건물에서 하나님(모건 프리먼 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철제 캐비닛을 ‘딱’ 하고 내려치자, 브루스 놀란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빼곡히 기록된 파일함이 끝도 없이 튀어 나와 브루스 놀란을 저쪽 벽 끝에 까지 밀고 가버립니다. 그 파일함 속에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잘한 일들과 그러지 못한 일들이 세밀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부끄러운 일들 몇 가지를 꺼내 읽으십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의 이 한 장면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심판대 위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다른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 심판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공정하며 자비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들에 대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상급은 각 사람들이 회심한 후, 그들 자신이 주어진 기회에 얼마나 신실했는가에 따라 돌아오게 됩니다(30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신실하게 살면, 그 몸으로 행한 선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인정하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학자 필립 휴즈(Phillip Hughes)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에 대해 “어둠의 선포’가 아니라 ‘가치의 평가에 대한 선언’이다. 즉 신실함 때문에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선언이다.”(39쪽)라고 묘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상급은 하나도 없어”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캐비닛에서 상급을 받을 만한 특별한 우리의 행실을 찾아내어 우리를 격려하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말로 천국에서 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집요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불의한 대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물질적으로 관대

하며,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접대하고, 구제와 금식과 기도로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직장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사랑하며,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큰 불에도 타버리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천국에 쌓게 될 것입니다. 큰 불에도 그대로 남겨지는 행위들은 열과 압력을 견딘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반짝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둡고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으로 우리가 갈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해보는 것으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삶이 된다면, 이 세상은 오히려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김대만 목사

•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파이디온선교회 대외협력 팀 팀장





존더반 ZONDERVAN 신약주석

강해로 푸는 야고보서

크레이그 블롬버그 & 마리암 카멜 지음 | 정옥배 옮김 | 295쪽 | 25,000원

존더반 신약주석, 주석과 강해를 한 책에서 만나다!

정확하고 분명한 주석, 완벽하게 도해된 문맥 구조, 설교자를 위한 강해적 설명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존더반 신약 주석 시리즈. 메인 아이디어 신·구약주석 시리즈와 찰스 스윈돌의 신약 인사이트 시리즈에 이어 영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주석과 강해의 세계가 열립니다.

존더반 신약주석 시리즈의 특징

- 광범위한 전후문맥 안에서 본문의 역할을 논의한다.
- 본문의 큰 개념 혹은 중심 취지를 한두 문장으로 기술한다.
- 헬라어 본문에 대한 각 주석가의 번역을 도해로 제시한다.
- 본문에서 각 절의 관계에 관한 해석적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한다.
- 비전문가들에게도 쉽고 유용한 헬라어를 사용하여 심도 깊은 주석을 제시한다.
-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를 요약하고, 그것이 이 시대 교회에 무엇을 말하는지 탐구한다.

추천

박정근_영안침례교회 담임목사 서정인_한국컴션 대표 이재학_디모테성경원구원 원장
양승헌_세대로교회 담임목사, 파이디온 공동설립자 및 전 대표, GMF 이사장

* 신약 전 20권 출간 예정



메인 아이디어 신·구약 주석 시리즈

성경 각 장마다 한 편의 설교가 펼쳐지는 새로운 개념의 주석

메인 아이디어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사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심사상을 찾아낼 수 있다면 성경 각 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 신·구약 전 32권 완간(세트 및 낱권 판매)

찰스 스윈돌의 신약 인사이트 시리즈

학문적 탐구와 살아 있는 설교를 위한 적용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약 해석서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핵심 주제를 짚어내는 정확한 통찰, 이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제적이고 신선한 적용, 그리고 그것이 독자들과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찰스 스윈돌만이 줄 수 있는 이 책의 선물입니다.

* 전 15권 중 7권 출간(계속 출간됩니다.)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 대회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서인원 전도사님, 인도차이나대회 MK 캠프 갈 수 있습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특별하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MK에 대한 마음이 컸기에 꼭 한 번 가고 싶었는데, 때마침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꼭 잡아야 하는 법! 가정도 있고, 교회 사역도 있는 터라 내심 불안했지만, 감사하게 아내의 허락도 받고 교회에서도 허락해주셔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의 시간을 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복된 만남 1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대회〉는 인도차이나에 있는 5개국(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대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서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MK캠프가 같이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부산 참사랑 교회에서 함께해주었습니다. 찬양 담당 박미경 간사님을 포함, 부산 참사랑 교회 한성철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 총 열한 명의 지체들과 함께 30여 명의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을 받은 터라 참사랑교회 지체들과 만나지도 못한 채 설교와 공과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팀과는 미얀마 현지에서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도 잠시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담을 '연합'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복된 만남 2

복된 만남은 참사랑 교회 지체들과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갓난아이부터 중학생들까지 함께한 시간은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기어 다니는 갓난아이들, 한창 장난칠 때인 초등학생들, 이제 다 컸다고 조금 뒤로 빠지는 중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말입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당장 설교부터 해야 하는데, 이 조합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야 할지... 그러나 기우였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즐거움 속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섬김

캠프는 2014 여름 파이디온 성경학교 주제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미얀마에 가기 전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전할까? 공과 설교야 이미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 내내 두 번씩 반복했던 내용들이라 크게 부담은 없었지만, 한국과 선교지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무엇을 주어야 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

습니다. "왜 너희가 이곳에 있는지 아니?"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 교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답엔 기쁨의 대답이 아니라 억울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외롭고, 소외받고, 때론 고난받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라!'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공과 설교를, 저녁에는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이 때로는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번 가을은 참으로 풍성했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들이 모여 제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3박 4일의 모든 이야기를 다 풀기엔 종이가 부족하여 참사랑교회 지체들과의 만남과, 아이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이번 인도차이나 대회에 참석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두어 가지만 나누고 글을 마치려합니다.

미얀마에 가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팀원들과 스케줄이 맞지 않아 홀로 가야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비행기를 경유해야 했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묵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에겐 '혼자'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사역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세대, 특히 MK들을 위해 자비량으로 헌신한 부산 참사랑교회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리고 온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8년 동안 후임자, 동역자 없이 외로움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 라오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꾸준하게 헌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다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캠프의 끝이 아쉽고, 헤어짐이 아쉽지만,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사역에 동역해주신 부산 참사랑교회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인원 강도사

-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 산본양문교회 초등부 담당
- 파이디온선교회 VBS 팀 강사



선교안테나

주일

양영학, 한경신 선교사

MK: 성지, 성애, 성국

사역지: 홍콩 및 X국
사역: 서점 운영, X국 지역 책 보급

1.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늘 선교 사역에 감사가 넘치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3. 성경학교의 안전과 졸업생들의 사역이 열매가 있도록.
4. 선교사 훈련원의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자녀들의 결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중진, 이은숙 선교사

MK: 은혜, 은총

사역지: 태국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세대 양육

1. 주님이 세우신 소수민족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2.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를 통하여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도록.
3. 한태간의 체류 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4. 김 선교사 가정과 양가 어머니의 건강, 특별히 장모님의 뇌졸중이 회복되도록.
5. 큰딸 은혜와(대 3) 은총이(11학년)의 학업의 필요를 위하여.

월요일

이미경, 태일 선교사

MK: 룯, 조이

사역지: 탄자니아

1. 다르살렘 땅에 우물이 파여지길.
2. 학교는 보내는 데 아직 집으로 데려오지 못한 도도마의 127명의 아이들의 입장을 위해.
3. 센터 사무실이 주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잘 결정되도록.
4. 싸웨나 스테프들의 영성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5. 양육하고 있는 300여 명의 아이들의 학년 진급과 건강을 위하여.
6. 룯과 조이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새겨지도록.
7. 백삼조 헌금 후원자 증가를 위하여.

안드레, 미스바 선교사

MK: 드보라, 아모스

사역지: 국내
사역: 국내 선교 자원 동원과 훈련

1.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사역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2. 사역한국 2016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2년간 섬기게 되었는데, 사역한국을 바로 세우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데 쓰임받도록.
3. SUFAN(북아프리카 번역 프로젝트)를 위해 - 이 일을 맡을 일꾼을 보내주시고, 아직도 땅을 더 갈고 씨를 더 뿌리고 물을 더 주어야 할 일꾼들이 많이 파송되도록.
4. 가족과 양가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

화요일

김용준, 이옥경 선교사

MK: 하람, 하진, 이레

사역지: 아르헨티나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세대 양육

1. 저희 부부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2. 건축 중인 이레교회가 주님의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건축비와 안전한 공사를 위해.
3. 아르헨티나의 안정과 회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4. 하람, 하진이의 대학진학과 이레의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

MK: 야곱, 요셉, 한나

사역지: S국
사역: 교회 개척 및 교육 사업

1. WS, AG, MO, 지역에 버벌 종족(제네가) 사역을 위한 새로운 필드를 세울 수 있도록.
2. 버벌 종족 안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3. 올해 1월 이후 리더십을 이양받고 사역하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Tw, Da, Jws, Jam, Kio)들이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이끌 수 있도록.
4. 사역의 마무리 단계를 위해 준비하고 나가는 저희 가정을 주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도록, 무엇보다 주께서 주시는 강력한 용기와 담력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수요일

이영민, 김명숙 선교사

MK: 문화, 용호

사역지: 국내
사역: 본부 사역

1. 김명숙 선교사의 건강과 신앙의 회복을 주시도록.
 - 지난 12월, 신장암 수술 이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 이식한 신장이 몸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2.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한 아들 용호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3. 아내를 옆에서 간호하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더 주님께 집중하도록.

민윤기, 안은자 선교사

MK: 하영, 하람

사역지: 태국
사역: 신학교 교육, 어린이 전도, 훈련

1.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태국과 주변국들의 연례전략회의 주관과 발제를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
2. 지난 8월, 한국 방문 기간 중 10월 ET영어터칭 세미나 준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
3. 10월 ET영어 세미나 태국, 베트남, 일본 사역을 끝까지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4. 하영이의 태국 탐사대학 적응과 신앙적으로도 잘 발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목요일

김혜정 선교사

사역지: C국

1. 매주 토요일 A교회에서 15명이 교사 훈련을 받는데, 이 과정을 통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사역에 더욱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2. 강사 교육을 통해 각 주일학교 현장과 미래를 바라보며 사역을 통해 헌신된 주일 학교 전임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3. 겸손과 은유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헌신한 사역자들과 하나될 수 있도록.
4. 지혜롭게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5.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동생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태하, 김혜한 선교사

MK: 은혜, 은선

사역지: 캐나다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세대 양육

1. 예배자로 먼저 바로 서도록.
2.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름부으심을 경험하도록.
3. 은혜, 은선이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이심을 알게 되도록.
4. 기도와 재정의 평생 동역자가 일어나도록.

금요일

박종덕, 신유현 선교사

MK: 세하, 주하

사역지: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780여 종족 중 미전도 종족인 220여 종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2. 깔리만탄에서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멋진 사역 팀을 이루어 자립 교회들을 세워 나가며, 전도처 개척 및 교회 개척 사역, 성도 제자훈련 사역,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3. 나하야(Nahaya)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바바르(Babar)지역, 투마방(Tumabang)지역, 팍마얌(Pakmayam), 따렝(Tereng), 빠위스(Pawis), 마눌(Maur) 지역에 교회, 기도처 그리고 유치원이 세워지도록.
5. 홈스쿨을 통해 가르치는 세하, 주하 두 아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6. 함께 동역하게 될 권태운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언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미자 선교사

사역지: 토*

사역: 코**리 족 사역

1.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캠프의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충만하여 모든 참가자가 말씀 속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2. 코**리 팀원들이 하나 되어 미흡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로 완성된 성경이 없음에도 그들의 언어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순발력과 창의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3. 현지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4. 팀을 이끄는 일, 자료 준비, 돕는 이들의 열의 부족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저를 주님이 위로하시고, 캠프의 좋은 열매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도록.
5. 우기철인데 비로 인해 프로그램 운용에 어려움이 없고,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도록.

토요일

정바나바, 이에스터 선교사

MK: 예은, 예광, 예희

사역지: 소아시아(이슬람권)
사역: 신학교 교육, 어린이 훈련, 전도

1. 갈라디아 사랑교회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2. 성경 통신자들을 잘 돌보고, 발립보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후원 헌금

후원 헌금은 다음세대를 위한 국내·해외 직접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2014년 9월 1일~2014년 11월 30일

* 괄호 안의 숫자는 구좌수입니다(가나다 순). 한구좌: 5,000원

후원하신 분 강숙희(12), 고종율(80), 김동구(40), 김민기(12), 김상신(60), 김성원(20), 김영식(40), 김영인(30), 김영희(2), 김지형(6), 김치현(60), 김친수(20), 노신애(20), 박영란(12), 심라영(18), 유상실(30), 이성현/임성주(18), 이정남(18), 장주동(60), 전해란(60), 조만제(18), 진양숙(12), 최광희/박효주(30), 최은진(정혜원)(30), 하희옥(18), 한규덕(2), 한규철(30)

후원 교회 과천중앙교회(120), 남광교회(60), 남서울은혜교회(600), 대영교회(60), 동백사랑의교회(20), 동산교회(10), 동원교회(60), 사랑의교회(60), 새로남교회(60), 서현교회(60), 성광교회(60), 세대로교회(180), 송월교회(60), 수원원천침례교회(80), 수주수정교회(60), 양산성광교회(30), 예사랑교회(12), 주은혜교회(30), 충만교회(6), 호산나교회(60)

후원 단체 ㈜에스코컨설턴트(60)

• 문의: 070-4099-7710

후원 안내

온라인으로 후원금 보내기: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연락처를 꼭 말씀해주시고.

- 국민은행 767437-01-009907 파이디온선교회
- 신한은행 140-009-951346 파이디온선교회
- 우리은행 1005-402-245623 파이디온선교회
- 농협 301-0128-1734-11 파이디온선교회

자동 이체로 후원금 보내기:

매번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 창구에서 은행 간 자동 이체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예정하실 수 있습니다(타 은행일 경우 300원의 수수료 부과).

파이디온 소개

파이디온이란 말은 헬라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파이디온선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막 10:14)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사역을 펴고 있습니다.

- ① 세계의 다음세대를 세웁니다.
- ② 다음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일꾼을 세웁니다.
- ③ 다음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 ④ 다음세대를 세울 도구를 빛습니다(도서출판 디모데).
- ⑤ 다음세대의 문화 속에 영원한 진리를 담습니다.

파이디온 기도 제목

커리큘럼 팀

1.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상에 맞는 교재로 집필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편집자, 디자이너, 그림 작가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3. 다음세대와 사역자, 교사의 배움과 삶의 변화를 위한 말씀 중심의 참여형 커리큘럼 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자훈련 팀

1. 지난 2014년 2학기에 1기 전도사학교와 1기 목요교사학교 첫 학기를 수강한 동역자들이 사역 현장에서 다음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자와 교사들로 서도록.
2. 신대원지부가 다음세대를 향해 '나도 바로 서고 남도 바로 세우며' 도전과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3. 2015년 사역자훈련 팀 사역에 지혜를 주셔서 진행하게 될 모든 일정이 교사와 사역자들을 섬기는 세미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미나가 되도록.

VBS 팀

1. 2015년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집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이 시대의 다음세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2. 함께 동역하는 강사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문화사역 팀

1. 어린이 찬양인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다음세대 예배인도자 세미나, 찬사모)를 통해 각 교회 훈련된 귀한 예배 인도자가 세워지도록.
2. 문화사역 팀에 새롭게 동역하게 된 신입강사와 선교단 신입단원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기쁨으로 동역하도록.
3. 여름 VBS 음반 작업에 지혜와 창의력을 주셔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청소년사역 팀

1. 2015 파이디온 청소년 캠프 교재 집필 팀이 사용하기 좋은 탁월한 교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2. '부모-십대 30일 대화 활용'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는 열망을 가진 교회와 사역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3. 청소년사역 팀 강사들이 교회 사역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소년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캠프사역 팀

1. 상반기 사역(겨울 캠프, 청소년 사역자 컨퍼런스)이 잘 진행되어서 다음세대와 다음세대 사역자가 영적으로 잘 훈련되도록.
2. 여름 사역(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을 교회와 시대의 필요에 맞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대외협력 팀

1. 광주, 김포, 대구, 대전, 부산, 제주에 있는 지역 지부들이 겨울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다음세대 사역자들이 지역 내의 자원과 사역적 역량을 잘 모을 수 있도록.
2. 해외지도자 훈련 사역에 좋은 강사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섬기는 파이디온의 사역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파이디온 뉴스

1. 출산

- VBS 팀 강사 박원설 전도사- 9월 15일, 딸 박시은
- 문화사역 팀 김현연 강사- 딸 전민희

2. 결혼

- VBS 팀 강사 조영광 전도사- 12월 27일(세대로교회)
- 문화사역 팀 강사 박미경- 12월 13일, 김은하- 12월 13일, 박아영- 12월 27일

3. 전도사학교 1기 종강

2014년 11월 17일에 10주 과정의 전도사학교가 종강했습니다. 1기로 참여한 40명의 동역자들이 사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 목요교사학교 1학기 종강

2014년 11월 13일에 10주 과정의 목요교사학교가 종강했습니다. 마지막 시간, 동원교회(장소제공)에서 제공해 주신 간식으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참여한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돋보였습니다.

5. 동아리방 개설

파이디온 서울장신신대원지부에 동아리 방이 생겼습니다. 동아리 방에서 스테디와 기도 모임과 독서 모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됩니다.

6. 2014 파이디온선교회 송년모임

2014년 12월 8일(월)에 <크리스마스 특집 공개방송 '파이디온 라디오' FM 12.08MHz>라는 타이틀로 남서울교회에서 '2014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파이디온 이사, 그루터기 회원, 선교단 및 강사, 직원 모두가 참여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구독 안내

<비전트리>를 구독하기 원하신다면

파이디온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aidion.org에 로그인 후, 회보 신청란에 e-mail 혹은 우편 발송 선택

회보 후원금으로 파이디온 사역에 동참하여주십시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회보를 접할 수 있고 다음세대의 가슴에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0원_ 회보 후원금은 회보 제작에 사용됩니다. [신한은행 140-009-951346/ 파이디온선교회](http://www.paidion.org)

* 문의: 070-4099-7710